

# 최저임금 1만800원 vs 8720원 동결... 노사 '줄다리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영세기업 지급능력 한계  
일자리 타격 불가피” 동결 제시

노동계 “23.9% 올려 소득 증대  
현재 재난 극복하는 방안” 주장  
‘2080원’ 격차에 논의진통 예고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208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뉴스시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동결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

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지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게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을 두고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류 경총 전무는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가 접점을 못 찾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6월 말인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리모델링·정비사업, 효자노릇 ‘톡톡’

# 건설사, 줄줄이 ‘수주 1조클럽’ 가입

건설사 5곳 ‘1조 클럽’ 가입 성공  
‘복귀 한 달’ DL이앤씨 1위 기업  
흑석11구역 등 대우건설 2위 랭크  
녹색채권 발행 등 ESG도 강화

국내 건설사 중 다섯 곳이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 상반기 국내 정비사업 수주액이 총 1조7935억원을 기록해 1위를 나타냈다. 대우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건설사도 상반기 수주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올해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한지 약 한 달 만에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경기 군포시 ‘산본 우륵아파트 리모델링(3225억원)’ 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했고 지난달 5일에는 경기 수원 영통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2159억원)의 시공권을 따냈다. 지난달 12일에는 경기 군포시 ‘울곡마을 주공3단지 리모델링(4950억원)’ 사업을 수주했다.

상반기 국내 정비사업 수주 실적 2위를 기록한 대우건설은 올해 1월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4501억원)’을 시작으로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2865억원)’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1024억원) ▲창원 신월3구역 재건축(1881억원) ▲대구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1484억원)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리모델링 사업지로는 ▲‘가락쌍용2차 리모델링(1741억원)’ ▲‘수지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3876억원)’ 등을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상반기 7개 사업지에서 총 1조7372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전년도 전체 수주액 8728억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통의 강자’ 쌍용건설은 총 1조34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국내 정비사업 실적 3위에 올랐다. 쌍용건설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 ‘철산한신 리



DL이앤씨 사옥 ‘D타워 돈의문’ 전경./DL이앤씨

모델링(4500억원)’에 이어 5월 서울 송파구 ‘가락 쌍용1차 리모델링(8000억원)’을 수주했다.

현대건설 역시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서 시공권을 따내 총 1조2919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현대건설은 1월 경기 용인시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2300억원)’을 시작으로 ▲서울 합정동 가로주택사업(504억원) ▲대전 ‘모마변동1구역(1906억원)’ ▲대구 ‘신암19구역 재건축사업(1813억원)’ 등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에 이어 지난달 경기 ‘수원 영통지구 삼성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상반기 국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2731억원을 기록했다. 리모델링 법규 정비 이후 포스코건설이 국내 최초로 착공에 나선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 9차 아파트’는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GS건설은 ▲3월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2196억원)’ ▲4월 경남 창원 ‘신월1구역 재건축(5554억원)’ 등 외에도 다수의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주고를 올렸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

(2207억원)’, 5월 서울 마포구 ‘밤섬현대아파트 리모델링(933억원)’ 등을 따내 4개 사업에서 총 1조890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이밖에 각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ESG 경영 투자에도 힘쓰며 채권 발행 등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가 대립산업에서 분할된 이후 발행한 첫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3년물 채권 1500억원, 5년물 채권 500억원에 총 2250억원이 몰렸다. DL이앤씨는 발행액을 3년물 채권 2000억원, 5년물 채권 950억원으로 늘려 총 2950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채권에는 사회적채권과 녹색채권이 포함됐다. DL이앤씨는 해당 자금을 국내 현장 및 친환경 건축물 건설 프로젝트, 외주용역비 및 협력사의 상생 대출, 상생 펀드 투자(ESG)로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0억원은 국내 현장 자재대 및 외주 용역비로 사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달 말 ESG채권 중 녹색채권 6300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포인트 낮게 발행했다. LH는 발행액 전액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도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먼저 ESG채권을 발행해 ESG경영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 총 26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해당 자금은 녹색건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 건설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사 기성금 조기지급 재원 등으로 사용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먹거리가 줄어들자 리모델링 시장이 상대적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라며 “1기 신도시가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코로나 이후 금융여진 가능성 대비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투기수요차단에 주력하겠다”며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며 “코로나19대 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만기 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정상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금융(Next Finance)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복속도 격차가 취약계층에게 상흔이 되지 않도록 포용적 기조를 강화하고, 빅테크·핀테크를 통한 금융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형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의 여진’이 발생해 왔다. 경제부문의 회복속도 격차에 주목해 취약부문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위기대응 금융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 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의 계기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진단·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점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 상황을 ▲위기지속단계 ▲회복단계 ▲정상단계로 진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

## “백화점 오픈런 NO”... 인기상품 입점 강화

▶▶ 1면 ‘당일배송서 가격비교’서 계속

오후 9시 전에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무료로 선보인다. 이외 지역은 당일 출고를 진행해 오후 3시 이전에 주문하면 2~3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무신사는 당일 배송 서비스에 관해 “명품·럭셔리 상품을 구매할 후 수령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외출한 시간 동안 물품이 문 앞에 놓여진 상태로 방치돼 생기는 고객의 불안함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품 플랫폼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브랜드 및 제품들을 입점시켜 온라인을 구매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있기도 하다.

머스트잇은 백화점에도 재고가 없어 구매할 수 없다는 명품 시계의 판매고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머스트잇에서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명품 시계 품목의 합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머스트잇에서 취급하는 시계는 롤렉스, 까르띠에, 태그호이어, 불가리, 브라이틀링, IWC 등의 제품으로 모두 인기 브랜드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머스트잇은 키즈 제품으로 제품군을 넓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루이스미샤, 보러브스, 이포르케를 비롯한 키즈 브랜드와 몽클레어, 스톤아일랜드, 랄프로렌 등의 키즈 라인을 들여온 머스트잇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키즈 카테고리 상품의 합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미 기자 silverbeauty@